

## ‘거센 물결이’ 광주 현역들 줄고배...8명 중 7명 탈락

### 서구갑 조인철 전 부시장 송갑석 의원 꺾어 더불어민주당 광주 선거구 8곳 경선 마무리 ‘대표 친명’ 광산을 민형배 의원 1명만 생존

대표적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이 현역 의원 물결이 파도를 넘지 못하고 경선에서 탈락했다. 광주는 선거구 8곳의 민주당 경선 결과 7명의 현역 의원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고 친명(친이재명)계 민형배 의원만 생존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광주 서구갑 경선 결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이 송갑석 의원을 꺾고 공천장을 받게 됐다. 당초 송 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돼 본인 득표율의 20%를 감산받는 데다, 조 전 부시장이 신인가짐 10%를 적용받게 돼 어려운 경선이 예상됐다. 하지만 개표 결과 조 전 부시장이 본인의 가점과 송 의원의 감점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득표율을 올리며 권리당원과 일반시민

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민심이 현역 물결이로 흘러간 데다 경선 초기 송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대세가 조 전 부시장 쪽으로 기울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광주지역 민주당 경선은 8곳 모두 마무리됐다. 현역 의원 7명이 속절없이 무릎을 꿇었다. 북갑의 경우 경선에서 승리한 정준호 후보에 대한 공천 인준이 지연되고 있어 변수로 남아 있다. 경선 결과를 놓고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현역 의원에게 물었다거나,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이렇다할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현역 의원에 회초리를 들었다는 분석이 있다.

광주는 생활인구가 밀집한 광역도시로 특정한 민심이 형성되면 삼시간에 큰 물결기를 이루는 특성이 있다. 현역 의원 물결이는 인적 쇄신으로 정치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초선 의원을 대거 양산해 다시 호남 정치권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큰 인물’과 ‘큰 정치’를 내세우며 광주에 출마해 틈새를 공략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광주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재선인 송갑석 의원을 제외하고 7명 모두 초선이었다. **오유나기자**

국힘, '5·18 망인' 도태우 공천 유지  
“정치권 5·18 인식 방증”  
공천위 결정에 광주지역 ‘부글부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북한개입설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광주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13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늦은 오후 도 변호사에 대한 공천 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의힘 공천위는 ‘도 변호사가 밝힌 사과문의 진정성을 인정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 변호사는 지난 2일 재선 도전에 나선 임병헌 의원을 결선 경선에서 밀어내고 승리했으나 과거 5·18 왜곡·편향 발언이 발붙이며 공천 적정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Youtube) 채널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는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이 있고 북한의 개입 여부가 문제 된다는 것이 사실은 상식”이라고 왜곡·편향 발언을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도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글을 올렸으나 5·18 피해 당사자인 광주 지역 사회의 반응은 냉담하다. 공천 유지를 위한 일회성 사과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은 사과문이 실제 결과에 반영되면서다. 지역 사회는 정치권이 ‘5·18 정신 계승’ 간판만 걸어두고 실제 교육에는 미흡한 탓에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사회적 분위기가 5·18 정신 계승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관련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장기화될 경우 5·18 왜곡 인사들에 대한 계도가 아닌 임시방편성 재갈을 물리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며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니 내부에서는 5·18 관련 일치단결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왜곡·편향 발언이 튀어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당직자들에게 대한 관련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특히 현장을 찾아 직접 대답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5·18 정신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선욱기자**

## ‘금사과’ 10kg 도매가격 9만원대...평년보다 두 배 넘게 비싸

1년 전(4만1060원)비해 123.3% ↑  
작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한 사과값이

떨어질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올해 들어 10kg 당 도매 가격이 역대 최대인 9만원대로 올라서며 1년 만에 두 배 넘게 급등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12일 기준 사과(후지·상품) 10kg당 도매가격은 9만1700원으로 1년 전

(4만1060원)보다 123.3% 올랐다. 지난해 사과 도매가격이 평년(4만1165원)과 비슷했던 것을 감안하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과 도매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연말부터는 8만원대로 올라선 뒤로다 상승세를 거듭했다. 올해 1월17일 사상 처음으로 9만원(9만740원)을 돌파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9만4520원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2월에는 8만원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계속해서 9만원대를 유지 중이다. 12일 기준 사과 10개당 소매가격은 3만977원으로 한 달 전(2만7231원)보다 10.5% 올랐다. 1년 전(2만3063원)이나 평년(2만2974원)과 비교하면 30% 넘게 된 셈이다. 배는 상승폭이 더 크다. 10개당 소매가격이 전날 4만2808원으로 한 달 전(3만4241원)에 비해 25%, 1년 전(2만8523원)보다는 50.1% 뛰었다. 정부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사과·배 가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과 가격 할인 지원, 비정형과 공급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3~4월 중 204억원을 투입해 사과, 대파 등 13개 품목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해 유통업체 판매가격 인하에 연동되도록 하겠다”며 “같은 기간 할인지원 사업 예산도 230억원으로 확대해 최대 40% 할인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 13일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관계자들이 백설기 데이를 앞두고 백설기를 선보이고 있다. 백설기 데이는 화이트데이를 대신해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 떡을 전달하는 행사로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며 쌀의 우수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치러지고 있다.

unesco World Heritage site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장성 필암서원**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나도 절로  
아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늙사오리

-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自然歌)' -